운강 이강년 선생 항쟁 발자취 되짚어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용하구곡 등 진군로 답사

(사)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회장 이영범)는 지난 5일 문경 출신 불멸의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 선생이 120여 년 전 이 나라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진군했던 의병진군로를 답사했다.

지난 5일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답사팀이 진군로 답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2019년 제천지역과 소백산 죽령지역 전적지 답사행사를 주관한 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답사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소규모 인원이 참가해 답사 행렬을 이은 것이다.

건학마을 최명일씨의 안내로 황용건(기념사업회사무국장), 박갑로(백두대간의병전전쟁답사회장), 황준범(성균관문경청년유도회장), 권문식(운강의진좌종사 권용창 증손), 이정식(전주이씨 효령대군 문중)이 참가했다. 이날 답사팀은 월악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억수리 이만원 중군장 기념비와 생가를 답사하고, 의당 박세화 의병장이 설정한 용하구곡을 따라 불억령을 넘어 건학마을까지 약 8㎞에 이르는 험한 산길을 5시간에 걸쳐 답사했다.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日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건강 체크

이강덕 포항시장 부부, 죽장면 방문…카네이션 전달도

포항시는 6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부인 최혜련 여사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댁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죽장면에 거주하는 박 모 할머니(93)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이시며, 현재 전국에 14분이 생존해 계신다.

이날 박 할머니 자택을 찾은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준비해온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다.

박 할머니는 "평소에도 시에서 자주 찾아와 살펴줘서 감사하다"며 "카네이션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시는 매월 1회 이상 직원이 직접 찾아뵙고 할머니의 안위를 확인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문경레저타운이 6일 마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광지역민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기념 생필품 나눔행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폐광지역 주민 행복한 가정의 달 응원

문경레저타운, 마성면 등 5곳서 생필품 나눔 행사

㈜문경레저타운(대표이사 이문영)은 6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5개 폐광지역(문경읍·마성면·가은읍·호계면·점촌4동)에 '폐광지역민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기념 생필품 나눔행사'를 가졌다.

㈜문경레저타운과 문경시,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들은 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온정을 나눴다.

㈜문경레저타운은 매년 인근 마을과 노인회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 오고있으며, 올해부터는 폐광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폐광지역 진흥이라는 회사의 설립 목적에 더욱 다가서려 하고 있다.

이문영 대표는 "본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우리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지역의 다른 기업들도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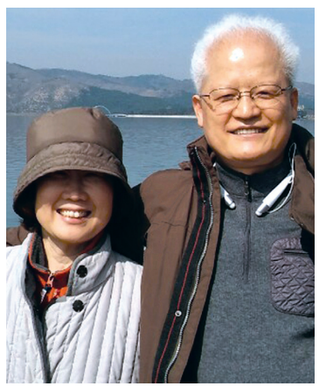
"상주시민이 베풀어준 사랑에 보답"

육근수 원장, 고향에 부모님 명의로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탁

"어버이날을 앞두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상주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쾌척한 상주 출신 의사가 주목받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육근수(63) 원장은 돌아가신 부모(육종언·박옥계) 이름으로 상주시에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6일 상주시가 밝혔다.


부모님 이름으로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쾌척한 상주 출신 육근수(사진 오른쪽) 원장과 부인 모습.

육 원장이 거액을 기부하기로 결심한 것은 상주시민이 부모님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다는 생각에서다.

그의 선친은 상주시 남성동 풍물거리에서 '서울약국'을 50여 년간 운영하던 약사였다. 많은 시민이 선친의 약국을 이용한 덕분에 장남인 자신이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육 원장의 마음이다.

육 원장은 "올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어버이날을 맞아 먼저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상주 시민에게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육근수 원장의 뜻에 따라 경상북도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어려운 이웃 200세대에 50만 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강영석 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의 시민들에게 큰 선물을 준 육근수 원장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따뜻한 마음이 모든 시민에게 전해져 가정의 소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kbj@kyongbuk.com

한울원전, 이웃사랑 행복나눔 솔선수범

기부금 1억9338만원 기탁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본부)는 6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직원들이 기탁한 이웃사랑 행복 나눔 기부금 1억9338만 원을 전달했다.

박범수 한울원전 본부장(사진 왼쪽)과 정동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기부금 증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울원전

이 기부금은 지역 내 우수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과 복지단체 운영 각종 프로그램 후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한울본부는 지난해 4억여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12억 원 상당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많은 기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한울원전 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온 기금으로 이웃에 희망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한울본부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여러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대구신세계百, 인재 면학 지원

중·고생 130명에 희망장학금 1억여원 전달

대구신세계백화점은 6일 동구청, 대구시교육청, 전통시장, 어린이재단 등에서 추천받은 130명의 지역 중·고생 1인 당 100만 원씩 총 1억3000만 원의 희망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과 별도로 수저·젓가락·빨대·세척솔로 구성한 수저 세트도 지급했다. 코로나 19로 각급학교에서 급식 때 제공하던 수저와 젓가락을 개인이 지참하도록 했고 급격히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바다거북 사진으로 유명해진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실리콘 소재의 빨대와 세척솔을 함께 구성해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신세계는 2019년 텀블러, 지난해 쓰레기 관련 도서를 장학금과 함께 지급해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 높였다.

대구신세계백화점이 6일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 1억3000만 원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대구신세계는 2017년부터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백관근 대구신세계 대표는 "희망장학금은 20여년간 이어오고 있는 신세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이번 장학금과 선물이 학업과 환경문제에 인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농협 달성군지부·유가농협·달성농기센터, 일손돕기 봉사

농협달성군지부와 유가농협,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지난 4일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농촌환경 정화활동과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찬원 팬클럽 엄마팬찬스, 치킨 전달

대구 출신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팬클럽인 '엄마팬찬스'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찬원의 부모가 운영하는 찬스카페가 있는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30곳에 치킨 250마리를 전달했다.

영천 자양면생활개선회, 어르신에 간식 제공

영천시 자양면생활개선회는 지난 5일 자양면 코로나 백신 접종날을 맞아 회원들이 직접 밀가루를 반죽한 수제 단팥빵을 만들어 예방접종을 맞으러가는 면내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전흥원 미주총연합동창회장 모교 영남대에 발전기금 기탁

이국 땅에서 50년 넘게 생활 중인 영남대 동문이 모교를 잊지 않고 발전기금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영남대 약학과 58학번 출신인 전흥원(81·**사진**) 영남대 미주총연합동창회장은 지난 4월 모교 발전기금으로 1만 달러(USD, 한화 약 1100만 원)를 기탁했다. 전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자 여사 역시 영남대 약학과 59학번 동문 출신이다.

이들 동문 부부는 모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평소에도 모교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여 오던 중 한국 대학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학에 곧바로 1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모교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영주경찰서가 6일 드론팀을 편성, 외부 자문위원 위촉식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재난 등 대응능력 강화 드론팀 운영 영주경찰서, 외부 자문위원 위촉식

영주경찰서는 6일 영주경찰서 1층 행사장에서 재난·집회·대테러 등 경비활동 전반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드론팀을 편성하고 외부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드론팀 운영으로 화재, 화학물질 유출 등 각종 재난 및 테러 상황이나 대규모 집회 등 현장 접근이 어렵고 육안을 통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과학장비인 무인항공기기(드론)를 활용 구체적인 현장상황 확보를 통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초경량비행장치조정 자격증을 소지한 진종선 경감, 강홍수 경위 등 4명을 드론팀으로 구성하고 외부 기술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다.

박종섭 영주서장은 "각종 치안현장에서의 영주서 드론팀의 활약을 통해 영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드림(Dream)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정천균 한노총 포항지부 의장 '대통령표창'

정천균 한국노총 포항지부 의장은 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열린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2021년 근로자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영양 청우회, 감염병 대응 유공 장관 표창

영양 청우회(회장 김경원)는 코로나19 방역 적극 참여 관련 공적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인사

□경상북도

〈3급 승진〉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